

# 고령자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정 성 미\*

## I. 머리말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1970년대 초반 시작되어 1980년대 말 이후 가속화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에 전체 인구의 7%가 65세 이상 노인인(고령화사회<sup>1)</sup>)에 진입하였다.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인구비율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한편, 2020년경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4%에 달해 고령사회로, 2026년경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이 필요한 사람은 더 필요한 사회구조가 되면서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않았던 고령자 노동시장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미 고령사회를 겪은 선진 국가들의 연구에서 고령화가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하며 삶의 질의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고,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예에서 우리의 현실을 다시금 바라보게 한다. 이에 따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이들의 적극적인 고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sup>2)</sup>에 의거하면 5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은퇴하는 연령이기도 하다. 201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자 부가조사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일자리)을 그만둔 평균연령은 평균 만 53세로 나타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mjung@kli.re.kr).

- 1) UN의 기준에 따르면, ‘노인’이란 65세 이상을 말하며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고령사회(Aged Society)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말한다.
- 2)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에 의하면,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이며,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났고, 50대에 그만둔 경우가 43%로 가장 많았다는 것을 토대로 보면 50대 중반을 실질적으로 은퇴하는 연령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55세 이상 고령취업자와 더불어 고령인구 가운데 일을 하고 있는 비율, 즉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급감한 이후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던 고령자 고용률은 2005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2005년 55~79세 고용률은 46.7%에서 2011년 상반기 47.4%로 0.8%p 증가했고, 특히 55~64세는 2000년 57.8%에서 2005년 58.7%로, 2011년 상반기 61.2%로 빠른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령인구 가운데 일을 하고 있는 취업자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비단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효과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실질적인 은퇴연령인 50대 중반 이후의 연령대에서 노동시장의 참여가 높다는 것은 55세 이후 자신의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한 이후 다른 일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증가한 고용률만큼 늘어난 고령자(55~79세)의 일자리 특징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고령취업자는 농업과 자영업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고용률이 증가한 시점인 2005년 이후 고령자 노동시장 구조가 어떠한 변화를 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고령취업자들은 주된 자신의 일자리를 그만둔 이후에도 일자리에 머물러 있는 다양한 이유를 살펴해보도록 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Ⅱ장에서는 고령자 연령대별 최근 현황을 살펴보고, 55세 이상 고용률 추세와 변화를 요약한다. 제Ⅲ장에서는 고령취업자의 일자리 특징을 종사상지위 및 산업, 직종의 변화로 살펴해보도록 한다. 제Ⅳ장에서는 어떠한 부문에서 변화가 발견되었는지 분석하고 일자리 선택 사유를 살펴해보도록 한다. 제Ⅴ장에서는 요약 및 정책적 제언을 하도록 한다.

## II. 연령별 고용률 변화 추세

전체 생산가능인구에서 55~79세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00년 18.7%에 해당했던 고령자 비중은 2011년 상반기 24.1%로 크게 증가했으며, 세부연령으로 나누어 보면 55~64세는 2000년 10.6%에서 2011년 상반기 12.9%, 65~79세는 2000년 8.1%에서 2011년 상반기 11.3%로 각각 증가했다.

한편, 2011년 상반기 55~79세 고령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0%에 해당하는 4,688천 명을 기록하였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대란, 2008~2009년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대체로 인구증가율보다 경제활동

<표 1> 55~79세 고령자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천 명, %)

	55~79세				55~64세				65~79세			
	2000	2005	2010	2011 상반기	2000	2005	2010	2011 상반기	2000	2005	2010	2011 상반기
생산가능인구 [비중]	6,749 [18.7]	8,116 [21.2]	9,535 [23.5]	9,886 [24.1]	3,823 [10.6]	4,257 [11.1]	5,048 [12.4]	5,263 [12.9]	2,926 [ 8.1]	3,859 [10.1]	4,487 [11.1]	4,623 [11.3]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3,243 (48.1)	3,864 (47.6)	4,682 (49.1)	4,827 (48.8)	2,277 (59.6)	2,563 (60.2)	3,166 (62.7)	3,313 (62.9)	966 (33.0)	1,300 (33.7)	1,516 (33.8)	1,514 (32.7)
취업자 (고용률)	3,170 (47.0)	3,789 (46.7)	4,553 (47.8)	4,688 (47.4)	2,210 (57.8)	2,499 (58.7)	3,074 (60.9)	3,223 (61.2)	960 (32.8)	1,290 (33.4)	1,479 (33.0)	1,465 (31.7)
실업자 (실업률)	73 ( 2.3)	75 ( 1.9)	129 ( 2.8)	139 (2.9)	67 ( 2.9)	65 ( 2.5)	92 ( 2.9)	89 ( 2.7)	6 ( 0.6)	10 ( 0.8)	37 ( 2.4)	49 ( 3.2)
비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률)	3,506 (51.9)	4,252 (52.4)	4,853 (50.9)	5,060 (51.2)	1,547 (40.5)	1,693 (39.8)	1,883 (37.3)	1,951 (37.1)	1,960 (67.0)	2,559 (66.3)	2,970 (66.2)	3,109 (67.3)

주: [ ]안은 전체 인구 대비 55~79세 인구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인구증가율이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부표 1 참조). 이는 생산가능인구에서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노동시장으로 진입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히 고령자가 늘어서 취업자가 늘었다고만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증가한 고령취업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2011년 상반기 기준으로 55~79세 고령자 고용률은 47.4%를 기록해 절반에 가까운 고령자가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남성은 61.2%, 여성은 36.1% 수준을 보이고 있고, 남성과 여성 모두 2005년에 비해 고용률이 증가했다. 세분화된 연령을 살펴보면 55~64세 고용률의 증가가 눈에 띄는데 2000년 57.8%에서 2011년 상반기 61.2%로 증가해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질적 은퇴연령인 50대 중반 이후의 고용률이 증가하는 것은 은퇴가 55세 이후로 늦춰졌거나 아니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이후 다른 일자리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고령자의 다수는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 그러나 55~79세로 보면 생산가능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 변화는 크게 변하지 않았고, 55~64세는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고용률의 변화를 연령별로 보여주고 있다. 고령층 55~79세의 고용률은 2000년 47.0%에서 2010년 47.8%로 0.8%p 증가했지만, 세부연령으로 보면 편차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5세 이후 1년단위 고용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55세 정점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1~4%p 감소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60대 중반까지

〈표 2〉 연령에 따른 고용률 추이(전체, 남성, 여성)

(단위: %)

	전 체			남 성			여 성		
	2000	2005	2010	2000	2005	2010	2000	2005	2010
55~79세	47.0	46.7	47.8	58.6	59.7	61.2	37.7	35.7	36.1
55세	64.3	66.8	71.5	80.1	81.8	86.1	50.1	50.9	56.9
56세	62.9	64.8	67.0	75.4	80.4	82.6	52.1	50.4	51.7
57세	62.0	63.7	64.4	73.5	79.0	79.6	50.8	47.7	49.2
58세	61.7	60.2	64.9	73.1	74.4	79.0	50.4	45.7	51.8
59세	60.0	59.4	62.5	71.6	74.0	74.5	48.0	45.7	49.9
60세	56.3	57.3	58.6	69.6	70.9	73.8	45.7	44.0	44.9
61세	55.6	56.0	55.0	63.6	67.0	69.0	48.2	45.5	42.6
62세	54.9	50.7	54.9	61.5	60.9	69.8	48.8	41.4	39.8
63세	50.5	53.0	49.8	58.8	64.5	63.5	42.7	42.5	36.3
64세	47.6	50.4	49.4	54.5	60.8	60.8	41.8	41.1	37.9
65세	48.3	47.4	45.2	56.3	58.6	55.2	41.4	37.6	36.6
66세	44.6	43.1	41.9	53.3	56.3	53.1	37.3	31.6	32.0
67세	45.1	40.7	41.3	55.4	52.8	52.2	37.2	31.0	31.2
68세	38.5	39.8	40.6	49.2	50.9	52.7	30.6	31.6	31.0
69세	35.2	39.8	34.8	47.8	47.6	45.2	27.1	33.2	27.6
70세	32.4	35.8	34.2	38.9	42.5	42.4	28.1	30.9	27.8
71세	29.1	32.1	35.5	39.3	40.0	45.6	23.2	25.8	28.1
72세	24.8	27.4	33.9	30.5	35.0	44.0	21.8	21.4	25.5
73세	23.9	26.7	29.6	33.4	35.9	37.8	19.3	21.3	23.1
74세	21.5	26.2	27.6	31.1	34.8	36.6	15.5	20.7	20.5
75세	22.7	23.6	23.1	31.7	31.0	28.8	16.7	17.8	19.4
76세	21.3	19.9	20.8	31.7	28.7	28.8	15.1	15.4	15.0
77세	21.8	17.4	20.2	30.4	25.5	30.3	16.8	13.5	14.2
78세	17.7	16.2	18.4	27.4	23.8	25.2	13.2	12.3	14.9
79세	14.0	12.6	17.4	19.3	21.3	26.6	11.6	7.7	13.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감소폭보다 60대 중반 이후의 감소폭이 더 크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55세, 60세, 65세 단위를 전후한 고용률 감소가 급격함이 눈에 띈다. 또 55~64세 사이의 연령별 고용률은 2000년, 2005년에 비해 2010년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2000년 이후 개별 연령의 고용률은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은 각각 전체, 남성, 여성의 지난 30년간 연령별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외환위기 이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외환 위기를 기점으로 하락한 이후 2000년 초반까지 상승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00년 중반 이후 각 연령집단별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연령별로 고용률 변화

추세를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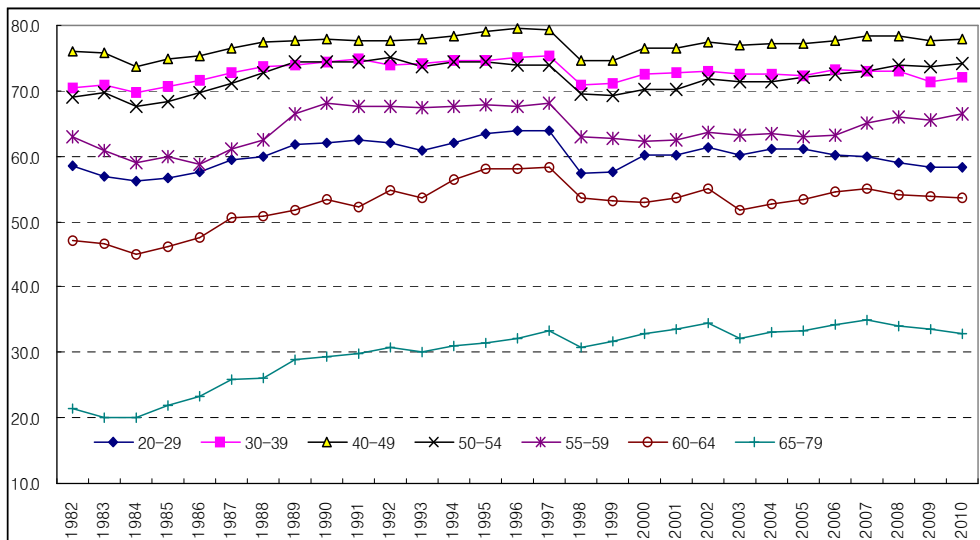
먼저 20대는 200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성별로 확연히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성 20대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1980년대 80%에 육박했던 20대 남성의 고용률은 2008년 이후 60%를 넘지 못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림 2 참조). 반면, 여성의 경우 1980년대 초반 30%를 조금 넘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증가를 지속하며(외환위기의 감소는 제외하고), 2010년에는 6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는 20대 남성 고용률 수준과 비슷한 수치이다.

핵심연령층인 30대와 40대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정체상태에 있으며 하향안정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50~54세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10년에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2008년 이후 30대 고용률을 앞지른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령층으로 분류되는 55세 이상의 연령집단의 고용률은 30~54세 핵심 연령층의 고용률보다는 낮은 수준에 있다. 하지만 55~59세의 고용률은 외환위기에 감소한 이후 2006년까지 60%를 조금 넘는 수준을 지속하다가 2006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관찰되는데 남성의 경우 2007년 급격한 증가 이후 2010년까지 80%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여성은 2006년 이후 증가추세를 꾸준히 지속해 2008년 50%를 넘은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림 1] 연령별 고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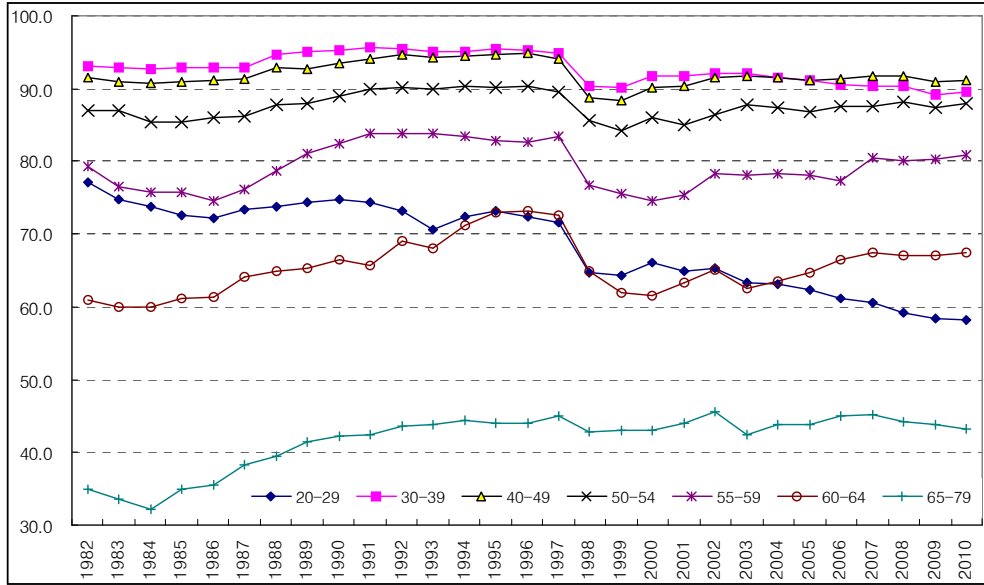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2] 남성 연령별 고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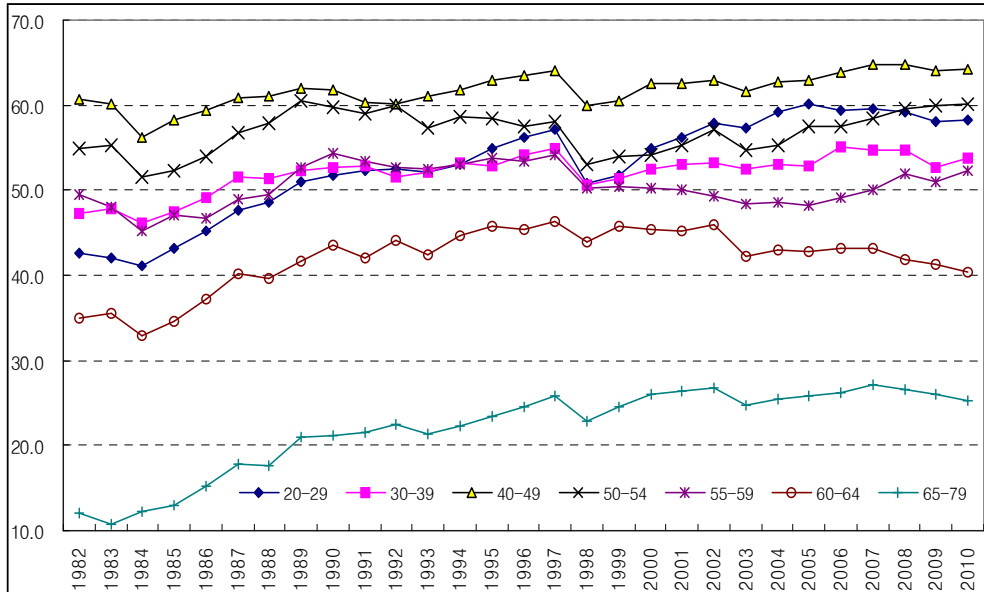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3] 여성 연령별 고용률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한편 60~64세의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후 50%를 상회하는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 성별로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고용률이 가장 크게 하락했고, 이후 2003년을 기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그리며 70%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여성은 외환위기 이후에도 큰 하락 없이 45%대를 유지했지만, 2003년 크게 하락한 이후 다시 안정세를 찾았고, 2007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65~79세의 고령층의 고용률은 외환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30%를 상회하는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남녀 모두에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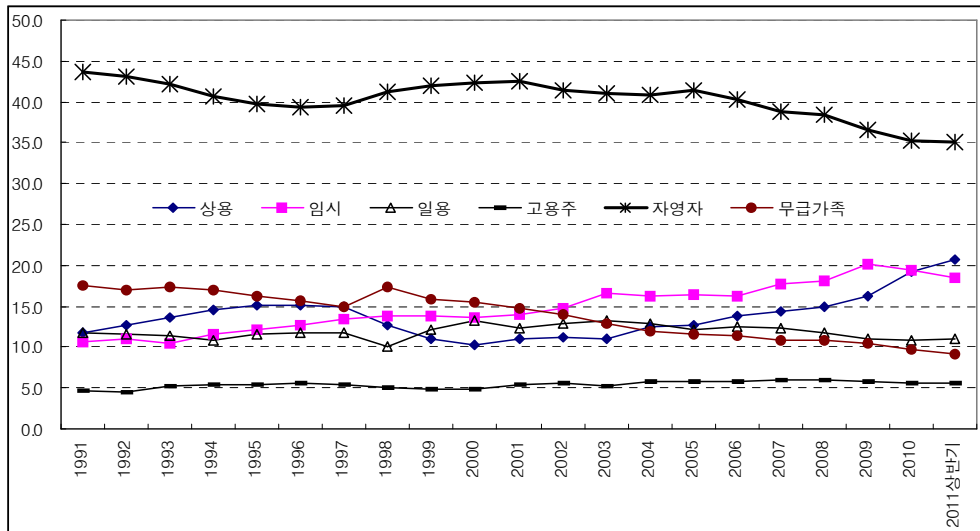
### Ⅲ. 고령자 일자리 특징

#### 1. 종사상 지위별 특징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고령(55~79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고령 취업자의 상당부분이 자영자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 참조).

[그림 4] 고령자(55~79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 추이

(단위: %)



주: 고용원이 있으면 고용주이고, 고용원이 없으면 자영자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러나 자영자에 집중되는 정도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고령취업자 중 자영자의 비중은 2000년대 중반까지 전체 고령취업자의 40~45%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1년 상반기에 이르러 35.0%까지 감소했다.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인 고용구조의 특수성 측면을 감안한다면, 2005년 이후의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고령취업자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직 종사자는 1997년 외환위기 이전 15% 수준에서 위기 이후 10% 수준으로 감소해 하향평준화를 지속하다가 2004년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9년 이후 더 가파른 속도로 진행 중에 있다.

임시직 고령취업자의 비중은 1990년대 초반 10% 수준에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가며 최근 고령취업자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가까워져 두 배가량 증가했다.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실시한 희망근로의 이유로 임시직이 급등하였고, 이후 2011년 상반기까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저학력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일용직 비중은 1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하향평준화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급등한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주 비중은 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최근 고령취업자는 과거 자영자 중심의 고용구조에서 상용직과 임시직 중심으로 임금근로자화되어 가고 있으며, 2005년 이후 그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산업별 특징

55~79세 고령취업자의 산업 분포를 2005년과 2010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여 시기가 변함에 따라 고용구조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표 3 참조). 먼저 55~79세 고령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농림어업이다. 그러나 시간의 변화에 따라 농림어업 취업자 감소가 뚜렷하게 보인다. 고령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31.0%에서 2010년 22.8%에 그치는 수준으로 감소했다. 연령을 55~64세와 65~79세로 나누어 살펴보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보인다. 이는 기존의 농림어업에 종사하던 고령자가 유출한 이후 유입이 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10년 고령취업자 중 건설업, 운수업, 사업서비스, 공공행정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업 등의 취업자는 2005년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운수업의 경우 2005년 20만 6천 명에서 32만 9천 명으로 12만 3천 명이 늘었다. 운수업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버스나 택시, 학원 및 유치원 차량운전과 관련된 까담으로 보인다.

사업서비스에 종사하는 고령취업자의 비중은 2005년 6.6%에서 2010년 7.9%로 증가했



고, 공공행정서비스의 비중은 2005년 2.3%에서 2010년 4.5%로 증가했다. 특히 공공행정 서비스의 경우 65~79세에서 비중이 늘었는데 이는 희망근로 정책 실시 이후의 특징인 것으로 보인다. 보건 및 사회복지업은 2005년 0.9%에서 2010년 2.7%로 증가했는데 이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같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자리 확충의 일환인 정부 정책의 측면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표 3> 55~79세 고령자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 명, %)

	취업자						비 중					
	55~79세		55~64세		65~79세		55~79세		55~64세		65~79세	
	2005	2010	2005	2010	2005	2010	2005	2010	2005	2010	2005	2010
전 체	3,790	4,554	2,497	3,073	1,292	1,48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1,174	1,037	503	427	671	610	31.0	22.8	20.1	13.9	51.9	41.2
광업	2	3	1	3	1	0	0.1	0.1	0.0	0.1	0.1	0.0
제조업	349	436	284	354	65	82	9.2	9.6	11.4	11.5	5.0	5.5
전기가스증기수도	5	5	3	5	2	0	0.1	0.1	0.1	0.2	0.2	0.0
하수원료재생·복원	12	11	9	9	3	2	0.3	0.2	0.4	0.3	0.2	0.1
건설업	228	300	196	265	32	34	6.0	6.6	7.8	8.6	2.5	2.3
도매 및 소매업	522	617	338	416	184	200	13.8	13.5	13.5	13.5	14.2	13.5
운수업	206	329	169	260	37	69	5.4	7.2	6.8	8.5	2.9	4.7
숙박 및 음식점업	252	300	211	253	41	48	6.6	6.6	8.5	8.2	3.2	3.2
출판·영상 등	18	21	12	18	6	3	0.5	0.5	0.5	0.6	0.5	0.2
금융 및 보험업	43	51	35	46	8	5	1.1	1.1	1.4	1.5	0.6	0.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0	165	121	103	48	62	4.5	3.6	4.8	3.4	3.7	4.2
전문·과학기술서비스	30	60	22	45	8	15	0.8	1.3	0.9	1.5	0.6	1.0
사업서비스	250	360	186	253	64	107	6.6	7.9	7.4	8.2	5.0	7.2
공공행정 등	86	207	64	120	22	87	2.3	4.5	2.6	3.9	1.7	5.9
교육서비스업	92	124	83	108	9	16	2.4	2.7	3.3	3.5	0.7	1.1
보건업 및 사회복지	33	125	27	82	6	43	0.9	2.7	1.1	2.7	0.5	2.9
예술·스포츠·여가관련	34	40	26	31	9	8	0.9	0.9	1.0	1.0	0.7	0.5
협화·단체·수라기타	211	271	156	211	55	60	5.6	6.0	6.2	6.9	4.3	4.1
가구내 및 자가	67	87	45	59	21	28	1.8	1.9	1.8	1.9	1.6	1.9
국제 및 외국기관	6	5	6	5	0	1	0.2	0.1	0.2	0.2	0.0	0.1

주: 9차 산업 기준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 3. 직종별 특징

다음으로 55~79세 고령취업자의 직종 분포를 <표 4>에서 분석했다. 2005년은 고령취업자에서 농업숙련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0년에는 단순노무직 규모가 커지면서 직종구성이 변화했다.

산업별 고령취업자와 마찬가지로 직종별 분포에서도 농업숙련업의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2005년 29.2%에서 2010년 21.3%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단순노무직은 2005년에 비해 32만 3천 명이 증가해 128만 명이 되면서 2005년 25.3%에서 2010년 28.1%로 비중이 증가했다. 단순노무직의 증가는 여성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연령을 세분화하여 나누어 보아도 여성 중심의 증가 경향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히 단순노무직의 대부분은 청소 및 경비관련업과 가사·음식 및 판매관련 단순노무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표 5 참조).

한편, 단순노무직과 함께 전문가, 사무직, 기능원 및 기계조작에서 고령취업자 비중이 증가했다. 특히 운전 및 운송업을 중심으로 한 기능원 및 기계조작업<sup>3)</sup>의 대부분은 남성

<표 4> 55~79세 고령자 직종별 취업자

(단위: 천 명, %)

	취업자						비 중					
	55~79세		55~64세		65~79세		55~79세		55~64세		65~79세	
	2005	2010	2005	2010	2005	2010	2005	2010	2005	2010	2005	2010
전 체	3,790	4,554	2,497	3,073	1,292	1,48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관리자	126	135	100	112	26	23	3.3	3.0	4.0	3.6	2.0	1.6
전문가	182	282	148	226	34	57	4.8	6.2	5.9	7.4	2.6	3.9
사무직	107	164	86	143	21	21	2.8	3.6	3.4	4.7	1.6	1.4
서비스	316	370	270	312	46	57	8.3	8.1	10.8	10.1	3.6	3.9
판매	438	499	308	370	130	129	11.6	11.0	12.3	12.0	10.1	8.7
농업숙련	1,107	968	475	400	632	568	29.2	21.3	19.0	13.0	49.0	38.4
기능원 등	254	359	212	313	42	45	6.7	7.9	8.5	10.2	3.3	3.0
기계조작 등	302	497	258	413	44	84	8.0	10.9	10.3	13.4	3.4	5.7
단순노무직	957	1,280	642	785	315	495	25.3	28.1	25.7	25.5	24.4	33.5

주: 6차 직업기준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3) 기계조작 등은 6차 직종 대분류상의 8번에 해당하는데 세부 직종으로는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식품가공, 섬유 및 신발, 화학, 금속 및 비금속, 기계제조, 전기 및 전자, 운전 및 운송, 상·하수도 및 재활용처리, 목재·인쇄 및 기타가 있다. 이 가운데 운전 및 운송업은 2010년 34만 2천 명으로 전체 기계조작 중 69.1%에 해당한다.

<표 5> 2010년 55~79세 고령자 단순노무직 두 자리 직종 취업자

(단위: 천 명, %)

	구 성			비 중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단순노무 종사자	1,280	578	701	100.0	45.2	54.8
건설 및 광업관련	87	79	8	6.8	6.2	0.6
운송관련	45	37	8	3.5	2.9	0.6
제조관련	92	26	67	7.2	2.0	5.2
청소 및 경비관련	594	336	257	46.4	26.3	20.1
가사·음식 및 판매관련	268	21	247	21.0	1.6	19.3
농림어업 및 기타서비스	193	79	114	15.1	6.2	8.9

주: 6차 직종분류 두 자리 자료는 2008년 이후 제공되어 2010년 내용만 수록함.  
 자료: 통계청(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80%) 중심의 직종인데 2010년 비중이 2005년에 비해 4.1%p 증가하여 18.8%를 기록했다. 전문가의 경우 55~64세에 증가가 집중되었으며 남성 중심의 증가를 보였다(부표 3 참조).

#### 4. 산업×직종별 특징

산업과 직종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산업과 직종을 교차하여 확인해 보도록 한다. 표의 세로축은 산업을 가로축은 직종을 나타내고 있다. <표 6>에서 2010년 산업과 직종을 교차한 결과를 보면 고령취업자는 전체적으로 일부 산업과 직종에 몰려 있고, 단순노무직의 경우만 산업 전반에 퍼져 있음을 보이고 있다. 즉 고령층이 종사하는 업종이나 산업은 상당히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이는 안주엽(2011)의 세대간 고용대체가능성 연구에서 언급한 대로 ‘고령층 고용은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에 부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밝힌 내용에서처럼 고령층 일자리가 청년과 동질의 일자리에 몰려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농림어업의 대부분은 농업숙련업이며, 농림어업이면서 단순노무직인 경우는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단순노무직의 변화에 농림어업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령취업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보이는 단순노무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단순노무직은 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데 부동산 및 임대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2005년에 비해 2010년은 증가했다<sup>4)</sup>. 특히 사업서비스, 공공행정서비스,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에 몰려 있는데 이 가운데 공공행정서비스업(2005년 4만 2천 명 → 2010년 14만

4) 2005년과 2011년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규모의 변화는 있지만 비중의 변화는 발견할 수 없어 2005년 결과는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부표에 첨부하였다.

명)과, 사업서비스(2005년 21만 4천 명 → 2010년 29만 8천 명)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공공 행정서비스업에서 단순노무직이 증가한 이유는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실시된 희망근로의 영향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또 사업서비스업에서 단순노무직의 규모와 비중이 매우 크게 증가한 주된 이유는 청소 및 경비관련 단순노무직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사업서비스업과 단순노무직이 교차하는 29만 8천 명의 직종 두자리를 살펴보면, 청소 및 경비관련 단순노무직이 26만 5천 명으로 나타났다.

운수업은 기계조작업이 대부분이다. 이는 기계조작업 가운데 운전 및 운송업 비중이 대부분이라는 앞서 본 내용(각주 3)과 일치하고 있어, 나이가 들어도 상대적으로 일자리 진입이 가능한 운전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추측을 뒷받침한다.

<표 6> 55~79세 고령자 산업×직종 취업자(2010)

(단위: 천 명)

	전 체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판매	농업 숙련	기능원 등	기계조 작 등	단순 노무직
전 체	4,554	135	282	164	370	499	968	359	497	1,280
농림어업	1,037	0	1	1	1	1	957	0	1	75
광업	3	0	0	0	0	0	0	1	1	0
제조업	436	27	10	29	4	10	0	129	129	99
전기가스증기수도	5	1	0	2	0	0	0	1	0	1
하수원료재생·복원	11	2	0	1	0	0	0	0	3	5
건설업	300	16	9	9	0	3	3	149	26	86
도매 및 소매업	617	15	24	13	5	424	0	11	4	121
운수업	329	4	5	9	2	1	0	6	273	28
숙박 및 음식점업	300	3	0	0	198	15	0	0	0	82
출판영상 등	21	2	7	4	0	1	0	1	2	3
금융 및 보험업	51	9	3	7	1	26	0	0	0	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65	11	40	13	1	4	0	5	3	88
전문·과학기술서비스	60	10	34	8	0	1	1	1	1	4
사업서비스	360	5	4	5	9	4	5	9	20	298
공공행정 등	207	3	14	29	16	0	1	3	1	140
교육서비스업	124	17	72	8	7	0	0	0	6	13
보건업 및 사회복지	125	5	19	7	50	2	0	1	5	37
예술·스포츠·여가관련	40	1	7	1	17	3	0	1	1	10
협회·단체·수리기타	271	3	34	13	56	5	0	41	20	99
가구내 및 자가	87	0	0	1	1	0	0	0	1	84
국제 및 외국기관	5	0	0	3	1	0	0	0	0	1

자료: 통계청(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이상을 종합해 보면, 고령취업자에서 농림어업과 농업숙련업의 규모 및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고, 사업서비스, 운수업, 공공행정서비스업 등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들 대부분이 단순노무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운수업의 증가는 주로 남성이 주도하였고, 이들은 기계조작업에 종사함을 알 수 있다. 사업서비스에서 단순노무직 비중이 매우 크고, 규모도 증가한 이유는 주로 여성에서 증가와 청소 및 경비와 같은 용역서비스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 IV. 쟁점별 분석

##### 1. 고령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어디에서 증가하였는가?

<표 7>을 보면 최근 급격한 증가를 보인 상용직 고령취업자는 2010년 고령취업자 가운데 19.2%로 2005년 12.7%에 비해 6.5%p나 증가했다. 상용직의 증가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진행되었다. 상용직 남녀 비율을 보면, 남성이 77%가 넘을 만큼 절대적으로 많다. 그렇지만 여성 고령취업자 가운데 상용직 비중이 두 배 이상 증가할 만큼 여성 상용직이 차지하는 몫이 크게 증가했다.

<표 7> 55~79세 고령자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2005/2010)

(단위: 천 명, %)

	취업자						비 중					
	55~79세		55~64세		65~79세		55~79세		55~64세		65~79세	
	2005	2010	2005	2010	2005	2010	2005	2010	2005	2010	2005	2010
전 체	3,790	4,554	2,497	3,073	1,292	1,48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용직	482	876	429	751	53	124	12.7	19.2	17.2	24.4	4.1	8.4
남성	408	678	360	572	48	106	18.4	25.1	23.9	30.6	6.7	12.7
여성	74	198	70	180	5	18	4.7	10.7	7.1	15.0	0.9	2.8
임시직	620	881	455	574	165	307	16.4	19.3	18.2	18.7	12.8	20.8
남성	337	382	227	229	110	153	15.2	14.1	15.1	12.2	15.4	18.4
여성	283	498	227	345	55	153	18.1	26.9	22.9	28.7	9.5	23.7
일용직	463	490	309	324	153	166	12.2	10.8	12.4	10.5	11.9	11.2
고용주	216	259	172	213	44	46	5.7	5.7	6.9	6.9	3.4	3.1
자영자	1,569	1,609	874	946	695	662	41.4	35.3	35.0	30.8	53.9	44.8
무급가족	440	438	259	265	180	173	11.6	9.6	10.4	8.6	14.0	11.7

주: 남성과 여성의 경우 각각의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주목할 만한 점은 고령 상용직 증가를 주도한 산업이 사업서비스업(2005년 17.2% → 2010년 22.8%)과 보건 및 사회복지업(2005년 2.9% → 2010년 4.5%)인 점이다(표 8 참조).

2005년에는 상용직 가운데 제조업(21.3%)이 가장 많았으나 2010년에 사업서비스업의 절대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2010년 제조업 비중은 18.7%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사업서비스업 비중이 가장 높아져 산업 내에서 구성이 변화하였다. 그러나 상용 사업서비스업(2010년 20만 명)의 84%는 단순노무직이 차지하고 있다.

<표 8> 55~79세 고령자 임금근로자×산업별 취업자

(단위: %)

	상 용		임 시		일 용	
	2005	2010	2005	2010	2005	201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0.4	0.3	0.8	1.5	17.7	14.9
광업	0.2	0.2	0.2	0.0	0.0	0.0
제조업	21.3	18.7	13.7	9.8	10.6	9.4
전기가스증기수도	0.4	0.5	0.2	0.1	0.2	0.0
하수원료재생·복원	1.4	0.9	0.5	0.2	0.2	0.0
건설업	4.3	3.9	3.2	3.5	30.0	33.9
도매 및 소매업	1.9	3.0	8.2	8.4	9.3	14.9
운수업	8.9	8.7	4.3	3.1	1.5	1.2
숙박 및 음식점업	0.8	0.9	9.8	9.5	7.1	6.9
출판영상 등	1.0	1.4	1.1	0.2	0.0	0.2
금융 및 보험업	1.9	1.8	4.0	2.7	0.0	0.2
부동산업 및 임대업	8.9	6.5	10.8	6.6	0.6	0.6
전문·과학기술서비스	2.5	3.8	0.8	0.9	0.2	0.4
사업서비스	<b>17.2</b>	<b>22.8</b>	21.2	13.9	6.5	5.7
공공행정 등	6.8	6.7	<b>4.7</b>	<b>16.3</b>	5.2	0.8
교육서비스업	<b>13.5</b>	<b>9.7</b>	2.6	2.7	0.4	0.4
보건업 및 사회복지	<b>2.9</b>	<b>4.5</b>	<b>1.6</b>	<b>8.0</b>	0.6	1.4
예술·스포츠·여가관련	0.8	0.7	0.8	0.9	0.9	0.6
협화단체·수리·기타	3.7	4.5	5.1	4.5	3.2	3.5
가구내 및 자가	0.0	0.0	6.3	7.0	5.6	4.9
국제 및 외국기관	1.0	0.6	0.2	0.0	0.0	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한편, 증가한 상용직 고령취업자를 근로형태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주로 기간제와 파견 및 용역에서 크게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9 참조). 기간제 가운데 상용직 비중은 2005년 26.3%에서 2010년 46.3%로 절반에 가깝게 늘었고, 무엇보다도 2010년 파견과 용역의 상용직 비중은 60%에 육박하고 있다. 기간제와 파견 및 용역이 가장 많은 산업이 사업서비스인 점을 고려한다면, 늘어난 상용직 대부분이 비정규직임을 알 수 있다.

<표 9> 55~79세 고령자 근로형태별 취업자

(단위: 천 명, %)

	규모		구성비		상용직 비중	
	2005	2010	2005	2010	2005	2010
55~79세 임금근로자	1,529	2,308	100.0	100.0	31.4	38.9
정규직	642	955	42.0	41.4	52.0	57.9
비정규직	887	1,353	58.0	58.6	16.5	25.4
한시	540	791	35.3	34.3	21.9	39.7
기간제	411	655	<b>26.9</b>	<b>28.4</b>	<b>26.3</b>	<b>46.3</b>
시간제	182	437	<b>11.9</b>	<b>18.9</b>	0.0	3.0
비전형	433	705	28.3	30.5	16.2	28.7
파견	11	52	0.7	2.3	<b>18.2</b>	<b>59.6</b>
용역	192	293	12.6	12.7	<b>32.8</b>	<b>58.0</b>
특수고용	62	67	4.1	2.9	6.5	1.5
가내근로	36	18	2.4	0.8	0.0	0.0
호출근로	157	295	10.3	12.8	0.0	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고령취업자 가운데 임시직 증가는 여성에 의함이 뚜렷하다. 55~79세를 보면 2005년 임시직은 남성이 더 많았지만 2010년은 여성 임시직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임시직 증가를 주도했다(표 7 참조). 연령을 55~64세, 65~79세로 나누어 보아도 여성에 의해 임시직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임시직이 크게 증가한 산업은 공공행정서비스와 보건 및 사회복지업 등에 몰려 있는데, 증가한 공공행정서비스업의 대부분이 단순노무직이라는 점은 2009년 시작된 정부 정책인 희망근로 효과라 볼 수 있다).

## 2. 고령취업자 중 자영업 비중은 왜 감소하였나?

경제활동참가율과 임금근로자 비율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보편적으로 낮아지고 자영업

5) 2010년 임시직 공공행정서비스업은 14만 3천 명인데 이 중 88.1%인 12만 6천 명이 단순노무직이다.

자의 비율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자영업은 근로활동 연령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를 하면서 자영자로 흡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0년 이후의 추세는 이와 반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7>을 보면, 자영자는 2010년 1,609천 명으로 2005년 대비 4만 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자영자 비중은 2005년 41.4%에서 35.3%로 감소했다. 고령자의 연령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 55~64의 자영자 비중은 2005년 35.0%에서 2010년 30.8%로 감소했고, 65~79세의 자영자 비중은 53.9%에서 44.8%로 감소했다.

<표 10> 55~79세 고령자 비임금근로자×산업별 취업자

(단위: %)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2005	2010	2005	2010	2005	201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6.9	9.2	49.1	41.9	68.3	57.5
광업	0.0	0.0	0.0	0.0	0.0	0.0
제조업	16.6	16.0	3.8	4.4	3.6	5.9
전기가스증기수도	0.0	0.0	0.1	0.0	0.2	0.0
하수원료재생복원	0.5	0.4	0.0	0.0	0.0	0.0
건설업	11.1	9.5	1.4	2.6	0.5	0.7
도매 및 소매업	19.8	21.0	19.8	18.7	14.8	19.9
운수업	2.3	1.9	7.8	13.3	0.5	0.5
숙박 및 음식점업	23.0	19.8	4.6	5.1	7.5	9.4
출판영상 등	1.4	1.5	0.1	0.1	0.2	0.2
금융 및 보험업	0.5	1.1	0.5	0.3	0.0	0.2
부동산업 및 임대업	3.7	5.3	2.6	1.7	1.6	1.1
전문과학기술서비스	3.2	3.4	0.3	0.4	0.0	0.2
사업서비스	1.4	1.9	0.1	0.2	0.2	0.2
공공행정 등	0.0	0.0	0.0	0.0	0.0	0.0
교육서비스업	2.3	0.8	0.2	0.6	0.2	0.2
보건업 및 사회복지	1.8	2.3	0.1	0.1	0.0	0.2
예술스포츠여가관련	0.9	1.1	1.0	1.1	0.7	0.5
협화단체수리기타	4.6	4.6	8.3	9.3	1.6	3.2
가구내 및 자가	0.0	0.0	0.1	0.1	0.0	0.0
국제 및 외국기관	0.0	0.0	0.0	0.0	0.0	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이렇게 취업자 가운데 자영자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주된 사유는 농림어업 때문이다. 우리나라 고령취업자 가운데 상당수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는데, 농림어업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5%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농림어업 자영자의 절대수가 감소하면서 이 부분에서 기존의 근로자들이 퇴출한 이후 신규 유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농림어업을 중심으로 자영자가 감소하면서 산업 내부의 구성이 변하는 것을 <표 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체 2005년 자영자의 절반 가까이가 농림어업이었으나 2010년 41.9%로 감소했다. 반면, 운수업은 2005년 7.8%에 불과했으나 2010년 13.3% 증가했다.

고령자영자는 주로 농림어업이나 거리에서 노점이나 지하철 폐지수집, 채소판매와 같은 생계형 자영자가 다수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영업의 주된 일자리 장소에 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2007년 8월 처음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는 운영(소속된)하는 사업체의 주된 장소를 묻는 항목이 있어 이를 이용해 분석하도록 한다.

<표 11>의 2007년 8월과 2010년 8월 부가조사 분석결과, 자영업자의 다수는 야외 작업 현장(2010년 44.1%)에서 일한다고 응답했으며, 2007년에 비해 2.2%p 증가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한편, 사업장에서 일하는 고령자는 2007년 33.6%에서 2010년 30.8%로 감소했다. 자동차, 트럭, 고깃배 등 운송수단을 이용해 자영업을 하는 고령층은 2007년 9.1%에서 2010년 13.1%로 증가해 자영자 가운데 운수업이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1> 55~79세 고령자 비임금근로자의 운영(소속) 사업체 주된 장소

(단위: 천 명, %)

	2007년 8월			2010년 8월			
	고용주	자영자	무급	고용주	자영자	무급	
55~79세 고령자 전체	253 (100.0)	1,685 (100.0)	489 (100.0)	255 (100.0)	1,677 (100.0)	494 (100.0)	
비중	사업장(건물 및 땅)	86.6	33.6	37.6	86.3	30.8	35.4
	자기집(나의 집에서 과외 지도 등)	2.4	9.4	2.5	1.2	6.6	1.8
	남의 집(방문 과외 등)	0.0	0.4	0.2	0.0	0.2	0.0
	거리(노점 등)	0.4	5.4	2.5	0.0	5.1	1.8
	야외 작업현장	9.9	41.9	57.1	11.8	44.1	60.9
	운송수단(자동차, 트럭, 고깃배 등)	0.8	9.1	0.2	1.2	13.1	0.2
	기타	0.0	0.1	0.0	0.0	0.1	0.0

주: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는 2007년 8월 처음 실시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 3. 고령임금근로자가 일자리를 선택하는 사유는?

<표 12>의 고령임금근로자 가운데 일자리를 선택하는 주된 사유를 보면, 55~79세의 49.7%가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라 응답했다. 이는 2006년(40.7%)에 비해 9%p가 증가한 수치이다. 15~54세의 경우 2010년 20.9%인 것과 비교해 보면, 고령임금근로자는 2.4배가량 된다.

연령을 조금 더 세분화해 보면, 55~64세의 경우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라 응답한 비중은 2006년 38.1%에서 2010년 44.6%로 6.5%p 증가했고, 65~79세의 경우 2006년 48.3%에서 2010년 63.1%로 무려 14.7%p 증가했다. 반면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만족하거나 안정적 일자리라는 응답은 고령자 연령집단 모두에서 감소했다.

<표 12> 고령자의 주된 취업사유(임금근로자)

(단위: %)

	15~54세		55~79세		55~64세		65~79세	
	2006	2010	2006	2010	2006	2010	2006	201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근로조건(임금, 시간) 만족	31.3	28.6	24.6	19.3	25.8	21.0	21.2	15.0
안정적 일자리	27.6	30.6	19.0	18.1	21.1	22.4	13.1	6.6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	18.0	20.9	<b>40.7</b>	<b>49.7</b>	<b>38.1</b>	<b>44.6</b>	<b>48.3</b>	<b>63.1</b>
원하는 일자리 없어	5.6	4.5	5.6	4.3	5.6	4.0	5.5	5.0
전공·경력이 맞지 않아	1.6	1.5	1.0	0.7	1.1	0.8	0.8	0.5
경력을 쌓아 이동하기 위해	6.4	5.1	0.5	0.4	0.6	0.5	0.2	0.2
육아·가사 병행	1.9	2.0	1.9	2.6	1.8	2.3	2.3	3.6
학원·직업훈련 병행	2.2	2.1	0.0	0.0	0.0	0.0	0.0	0.1
노력한 만큼의 수입	3.8	2.9	3.9	2.5	3.8	2.7	4.0	2.0
근무시간 신축적	1.1	1.3	1.9	1.2	1.5	0.9	2.8	2.0
기타	0.4	0.4	1.0	1.1	0.6	0.8	1.9	1.9

주: 주된 취업사유를 묻는 항목은 2006년 처음 실시되었기 때문에 2006년 8월과 2010년 8월을 비교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한편, 저임금근로자를 시간당 중위임금의 2/3 이하를 받는 근로자로 정의할 경우 55~79세 고령 저임금근로자는 2010년 고령 임금근로자의 53.7%로 고령 임금근로자의 절반이 넘는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표 12 참조). 같은 기준으로 15~54세의 저임금고용의 비중은 2010년 21.9%를 기록하고 있다. 55~64세 저임금고용은 2010년 44.6%로 2006년 대비 2.9%p 감소한 반면, 65~79세의 저임금고용은 77.8%로 2006년 대비 5.2%p 증가하였다.

〈표 13〉 연령범주별 시간당 임금 기준 저임금근로자 비중(2006/2010)

(단위: %)

	15 ~ 54세	55 ~ 79세	55 ~ 79세	
			55 ~ 64세	65 ~ 79세
2006	22.4	54.0	47.5	72.6
2010	21.9	53.7	44.6	77.8

주: 1) 임금변수는 최근 3개월간 주된 직장(일)에서 받은 (세금 공제 전) 월평균 임금을 이용하였고, 노동시간은 평소 1주 근로시간 변수를 이용해 월평균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적용.

2) 시간당 임금은 매주 일을 한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것임.

3)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사실상 고령자들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된 이유가 생활비 등 당장의 수입 때문인 것이 당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2006년 이후 불과 4년 동안의 증가폭이 너무 크다는 점과 고령임금근로자의 절반이 저임금고용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구조변화에 따라 고령자도 더 높은 연령까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들의 생계 문제와 함께 사회가 떠안아야 할 부양비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당장 수입이 필요’가 주된 사유인 경우와 저임금고용이 젊은 세대와는 다르게 너무나 많다는 것은 연금이나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제도의 미비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 V. 맺음말

농업과 자영업은 두 축으로 지탱해 왔던 과거의 고령자 노동시장구조는 고령자 고용률이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인 2005년 이후 농림어업을 중심으로 한 자영자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과거의 추이와 다르게 55~79세 고령자가 상용직과 임시직 중심으로 임금근로자화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여전히 고령취업이 농림어업과 자영업 부문에 몰려 있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 임금근로자화되는 변화추세가 빨라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용직은 단순노무직·사업서비스업에서 주로 증가했는데, 이들은 주로 기간제, 파견, 용역 등의 비정규직에 다수 분포하고 있다. 이는 증가한 산업과 직종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단순노무직, 운수업, 사업서비스업 등이 증가했고, 특히 단순노무직의 경우 청소 및 경비관련업과 가사·음식 및 판매관련업 중심의 사업서비스업에서 증가했다. 또 임시직은 여성을 중심으로 공공행정서비스업에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희망근로 효과로 보

여 향후 지속적인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개인의 일자리와 소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가구소득이나 이전소득과 같은 기타소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취업자들의 취업 사유는 2006년에 비해 2010년에는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생계형 근로 비중이 크게 늘어난 점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에 몰려 있는 사실에 미루어 보아 고령취업자들의 일자리가 소득의 안정성이나 일자리 질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않았던 고령자는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고령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및 이들의 적극적인 고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기본적으로 고령사회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부양하는 사람은 더 필요한 사회인데, 이러한 사회변화를 단순히 노인복지정책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여러 정부 정책들의 일환으로 사회적일자리 증가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등 정책적 지원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널리 확산되지 않고 있다. 또 고령취업자의 분석으로 확인한 바로 고령층 고용이 일부 한정된 곳에서만 늘어났다.

더 이상 젊은 세대가 고령 세대를 뒷받침하기 어려운 사회구조로의 변화 속에서 가족과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령층이 너무나 열악한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지는 않은지, 고령자 고용대책 마련뿐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의 개념으로 확장시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KLI**

#### <참고문헌>

- 성재민(2011), 「상용직 근로자 증가에 대한 분석」, 『노동리뷰』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안주엽(2011), 『세대간 고용대체 가능성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2003),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부표 1> 인구증가율, 취업자증가율 추이

(단위: %)

	인구증가율	취업자증가율	격차
2000	2.8	2.6	-0.2
2001	2.7	3.6	0.8
2002	3.5	5.5	1.9
2003	4.0	-0.8	-4.8
2004	3.6	5.0	1.4
2005	5.0	5.1	0.1
2006	3.1	4.4	1.3
2007	3.0	5.1	2.1
2008	3.0	2.0	-0.9
2009	3.3	2.8	-0.5
2010	4.1	4.4	0.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부표 2> 55-79세 고령취업자 성별·산업별 비중 추이

(단위: %)

	남성		여성	
	2005	2010	2005	2010
전체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27.3	20.7	36.2	25.8
광업	0.1	0.1	0.0	0.0
제조업	9.9	10.3	8.3	8.5
전기가스증기수도	0.2	0.2	0.1	0.0
하수원료재생·복원	0.4	0.4	0.1	0.1
건설업	9.4	10.4	1.3	1.1
도매 및 소매업	12.4	12.2	15.8	15.5
운수업	9.1	11.8	0.3	0.4
숙박 및 음식점업	2.9	2.9	11.9	12.1
출판영상 등	0.6	0.6	0.3	0.2
금융 및 보험업	1.1	1.1	1.2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	6.2	4.4	2.0	2.4
전문과학기술서비스	1.2	2.1	0.2	0.2
사업서비스	7.3	8.5	5.6	6.9
공공행정 등	2.4	4.4	2.0	4.8
교육서비스업	3.2	3.2	1.3	1.9
보건업 및 사회복지	0.6	1.1	1.2	5.2
예술·스포츠·여가관련	1.1	1.0	0.6	0.7
협화·단체·수리·기타	4.2	4.4	7.5	8.3
가구내 및 자가	0.1	0.1	4.1	4.5
국제 및 외국기관	0.3	0.1	0.0	0.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부표 3> 55-79세 고령취업자 성별·직종별 비중 추이

(단위: %)

	남성		여성	
	2005	2010	2005	2010
전체	100.0	100.0	100.0	100.0
관리자	5.3	4.6	0.5	0.6
전문가	6.8	8.2	2.0	3.2
사무직	3.9	4.5	1.3	2.3
서비스	4.3	3.7	14.0	14.5
판매	10.0	9.2	13.8	13.5
농업숙련	26.9	20.6	32.6	22.3
기능원 등	9.0	10.6	3.4	3.9
기계조작 등	12.8	17.2	1.1	1.7
단순노무직	21.0	21.4	31.3	37.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부표 4> 55-79세 고령자 산업×직종 취업자(2005)

(단위: 천 명)

	전 체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판매	농업 숙련	기능원 등	기계조 작 등	단순노 무직
전 체	3,790	126	182	107	316	438	1,107	254	302	957
농림어업	1,174	1	1	0	0	0	1105	0	0	66
광업	2	0	0	0	0	0	0	1	0	0
제조업	349	29	4	14	7	7	0	97	91	100
전기가스증기·수도	5	1	1	1	0	0	0	1	1	1
하수·원료재생·복원	12	1	0	0	0	0	0	1	4	6
건설업	228	20	5	6	0	1	0	111	10	74
도매 및 소매업	522	13	15	5	2	387	0	2	2	95
운수업	206	4	3	11	1	1	0	2	159	26
숙박 및 음식점업	252	4	1	1	204	5	0	0	1	36
출판·영상 등	18	3	1	3	2	2	0	1	0	6
금융 및 보험업	43	6	2	5	1	26	0	0	0	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0	8	44	7	2	4	0	5	2	97
전문·과학기술서비스	30	2	12	8	0	2	0	0	2	4
사업서비스	250	5	1	5	6	0	1	7	10	214
공공행정 등	86	7	7	19	8	0	0	2	1	42
교육서비스업	92	16	49	8	3	0	0	1	3	12
보건업 및 사회복지	33	1	7	2	11	0	0	0	2	9
예술·스포츠·여가관련	34	0	9	1	14	1	0	0	1	7
협화·단체·수리·기타	211	5	20	8	52	2	0	20	12	91
가구내 및 자가	67	0	0	0	2	0	0	0	0	65
국제 및 외국기관	6	0	0	2	0	0	0	2	0	2

자료: 통계청(2005),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